

창 9:18-27 역사적으로 성경이 허위의식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경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육백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Anti-Semitism 근거로 삼은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셈족은 죽어 마땅하다는 허위의식에, 유럽인들이 놀아나면서 홀로코스트에 협조 혹은 방조한 겁니다. 그런 정서가 아직도 있으니까, 멜깁슨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란 영화 개봉할 때도, 영화가 Anti-Semitism 을 자극할 걸 우려했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알아도 개떡같이 알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노아 만취 사건'도, 그런 허위의식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게, 흑인에게 적용된단 겁니다. 그래서 흑인은 노예로 팔려도 마땅하고, 지금도 열등 인종으로 멸시받아 마땅하단 겁니다. 경건하던 사람이 흑인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보수적인 남부에서 온 seminary 동기가 자기가 노회 참석해 본 걸 제게 말했습니다. 노회는 교회들이 모인 회의인데, 노회 중에 흑인 목사가 나와 '형제들'하고 발언하자, 곧 이어 나온 백인 목사가 '형제라고 부르지 말라.' 했단 겁니다.

백인만 그러니까? 그들보다 늦게 이주한 한인들조차 흑인 무시하고, 흑인이 주 고객인데도 뒤에서 한국말로 욕들을 합니다. 백인하고 결혼한 한인이 흑인하고 결혼한 한인 깔보고 무시합니다. 크리스천이 그런다면, 그 바탕에는 개떡같이 잘못 안 알팍한 성경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 9:18-27 같이 읽겠습니다.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도)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8:20 재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9:1-17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새로 만들어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는지, 이미 있는 무지개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언약 내용도 다신 이런 홍수가 없을 거란 소극적 측면보다, 첫 사람 아담에게 창 1:22 에서 축복하신 걸, 9:1 에 다시 축복한 적극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 내용이 더 깊고 풍부해 집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비가 온 담이나, 폭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9:13 무지개의 히브리어 케쉬트는, '활'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오히려 무지개는 비유적인 뜻입니다. 창 27:3 이삭이 에서에게 "활로 사냥해 와서 요리해 주면 축복하마." 그 활이 케쉬트입니다. 천둥 번개를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활로 하늘에서 쏜 화살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면 활을 이렇게 잡고, 땅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활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하도록 돌려진 겁니다.

무기를 쓰는 편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활이 걸린 걸 무지개는 보여줍니다. 한번 그렇게 하늘에 얹힌 활 무지개는, 여지껏 한번도 그 방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강한 분이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대상과 언약을 갱신하실 때,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활 시위에서 화살이 떠날 때마다, 그것이 다시는 너희에게로 가지않고, 내게로 날아들게 하겠다." 그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단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언약을 자기 저주의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낱아들 저주의 화살을 다 내가 받겠단”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하고 저주가 되어 죽으심으로 성취됩니다.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왜 모진 형벌받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건 노아와 맺은 자기 저주의 언약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 만취 사건’이 없이 노아 기록이 끝났더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조차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하신 노아 앞에서, 주눅들고 ‘역시 나는 안돼!’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6:8 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만취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죄 지어도 좋고, 만취해도 좋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 지가 노아만취 사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노아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짓기 쉬운 사람이란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드리고, 은혜 넘친 언약을 새로 받은 채,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9:18-27 은 마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지은 죄처럼, ‘당대에 완전한 사람’ 노아가, 완전은 커녕 추태 부리고 수치를 다 드러낸 사건입니다. 완전한 사람 노아 일생이 그렇게 갈무리됩니다. 만약 위인전이면 절대 안 들어갈 내용이, 부록처럼 노아 전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방심하면, 은혜받기 전보다 훨씬 더 추해집니다. 은혜받은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사성 장군이 만취해 추태부렸다가 전역당한 일이 있습니다. 만취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냅니다. 함이 아버지 수치를 22 절 '보았다.' 그 동사는 '주목해서 자세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걸 암시한 단어입니다. 함의 행동은 아비 노아에게서 주도권을 뺏을 의도로 까지 해석되는데, 보고 아비 허물을 덮어주는 커녕 형제들에게까지 아비의 수치를 즐기게 충돌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보지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들은 첫 사람들에게 가족 옷을 해 입혀, 그들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 본을 따른 겁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기 수치가 들어난 일로, 즉각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수치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만취사건 주범이고 원인제공자인데, 노아는 화살을 남에게 돌립니다. 아무 잘못 없이도 활을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늘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허물에 대한 대응과,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래서 함이 죄에 빠지게 원인 제공해 놓고도 활을 남을 향해 돌리는 노아의 대응이 확연히 대조됩니다. 허물을 덮고 당신께로 돌린 하나님과 달리 노아는, 허물을 들춰 수치를 입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노아의 '예언적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힌트는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이끌고 들어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가나안 후손들이 10:15-20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절대 흑인이 아닙니다. 아랍계나 백인에 가깝고, 히브리인들과는 전통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저주 대상도 가나안과 그 가계지, 함과 그 모든 자손이 아닙니다. 함의

죄로 가나안을 저주한 것과 대조되게,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특히 27 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게 될 ‘그가’ 누구입니까? 맥락으로 볼 때, 야벳이거나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월터 카이저란 구약학자는 “그를”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개로 갱신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심을 통해 이루신단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 계획이 이뤄질 통로가 노아가게 전체에서 한 아들 가계로 좁혀집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로 맺으신 언약은, 이제 노아 가계 중 첫 아들 셈 가계를 통해 이루신단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터 카이저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 축복은 셈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대상은 셈의 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벳과 함의 후손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난폭자 이스라엘이 생물학적으로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한때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고, 지금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면 다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당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퍼붓고 중동의 화약고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 3:15 절 이미 선포되었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의 ‘허물 덮으심’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활을 당신께 돌리신 약속을 통해 더 구체화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가 아니라 방주에 방점 찍으시기 바랍니다. 홍수로도 죄 못 씻습니다. 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만취 사건이

홍수 직후 일어난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예표가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어떻게 당신 약속을 이루실지를 예표합니다.

저는 속된 말로 일찍 까졌습니다. 중학생 때 군인이던 아버지가 마산요양원 계실 때, 학교서 돌아오면 가방 팽겨치고 형들과 어울려 놀음을 했습니다. 그날도 가방 팽겨치고 어느 형 골방에서 패를 쪼는데, 방문 밖에서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모두 혼비백산해 도망쳤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따라온 제 보는 앞에서 마당에 있는 싸리비에서 회초리를 꺾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당신 종아리에 줄이 가게 제 앞에서 당신을 내리 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썸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썸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누구에게나 향합니다. 골 3: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람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담부터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고후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 결국 그분만이 우리 허물을 덮으실 수 있습니다. 요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도)